

경전번역의 탈권위적 성격과 사회문화적 의의: 개화기 한글성서 번역을 중심으로

박 범 석*

目 次

- I. 서론
- II. 경전언어와 권위
- III. 한글성서 번역의 전개과정
 - 1. 로스(John Ross) 성서번역의 배경
 - 2. 로스(John Ross) 한글성서의 의의
 - 3. 로스 이후의 한글성서 간행
- IV. 한글성서의 사회문화적 의의
- V. 결론

I. 서 론

성서의 한글번역은 기독교사나 선교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문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의를 갖고 있다. 또한 한글의 대중화와 문학, 어학의 분야에 끼친 한글성경의 영향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개화기 전후 성서의 한글번역에 대한 일련의 노력들은 한국의 종교사상사에서 경전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해석된다. 종교에 있어서 경전과 경전언어의 지위는 진리 그 자체로 인식될 정도로 권위를 갖는 것이 비단 한국만의 전통은 아니다. 특히 유교와 불교가 중국의 한문문화권에서 일찍

*동국대학교 강사

부터 유입되어 정착되어 온 한국종교사에서 한문은 경전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권위있는 언어로 간주된다. 따라서 한글이 창제된 훨씬 이후까지도 한문경전은 그 자체로 수정되거나 번역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자(朱子)의 유교경전 주석만이 정통으로 인정되었던 사례에서 보이듯이, 경전언어의 권위는 곧 해석의 독점적 권위와 연결된다.

종교언어로서의 경전을 자국의 언어로 해석하거나 번역한다는 것은 단지 의미의 전달이나 해석만이 아니라 일상언어의 차원에서 종교언어의 진리가 이해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한다. 또한 일상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진리 역시 종교언어 못지않은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탈권위적 해석의 공감대를 필요로 한다. 한글성서의 번역은 개화기 혼란스러운 한국의 사회상에 이러한 다양한 요건들을 충족시켜 주었던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한문경전의 권위로부터 소외되었던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글의 대중화를 통해 민중의 계몽과 문해력(literacy)을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이라 평가된다.

한글성서의 번역이 일차적으로는 개신교의 교세확장과 전도를 위한 것이었으나, 본 연구는 한글성서 번역에 따른 사회적 영향으로서 경전이해의 탈권위성과 한글의 대중화라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최초의 한글성서인 로스의 성서번역의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이들 한글성서의 번역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경전언어와 권위

서구의 사상사에서 가장 권위있는 텍스트의 전통을 가진 것이 성경이다. 신의 말씀이라는 후광 속에서 성경은 지상 최고의 텍스트로 자리했으며, 신의 전지전능과 독자의 굳건한 믿음 속에서 절대적 권위를 확립시켜왔다.¹⁾ 이러한 성경의 권위는 독자와 신자들의 믿음을

1) 김동규, 「텍스트-해석의 권위」, 『철학탐구』 제18권(2005), p. 239.

기반으로 형성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에게 도그마적 믿음을 강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직자나 공인된 신학자와 같이 성서언어의 권위를 독점하는 계층에게서 성경은 해석의 여지를 갖는 텍스트가 아니라, 일방적인 전달과 수용을 강요하는 절대적 권력의 상징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근대 이후 성경의 절대적 권위는 신의 죽음과 아우라의 몰락에 의해 상실됨으로써 성경은 더 이상 동양적 의미의 ‘경전(經典)’이 아니라 하나의 서적인 ‘성서(聖書)’로서 간주된다.²⁾ 벤야민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는 근대 이전의 예술작품(넓은 의미의 텍스트)이 ‘제의적 가치(Kultwert)’에서 근대 이후에 ‘전시적 가치(Ausstellungswert)’로 전환된 것이라고 표현한다.³⁾ 이와 같은 텍스트 개념의 변화가 성경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으나, 일정부분 성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 즉, 복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술작품의 아우라가 갖는 원본성·진품성·일회성이 상실되듯이, 인쇄 기술의 발달은 성경의 개인적 소유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성경 해석에 대한 독점적 권위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한 점이다. 성경이 갖는 제의적 가치로서 주술적 권위와 희소성은 반감되지만, 성서의 대중적 보급은 성서내용을 개인적으로 음미하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텍스트를 둘러싼 탈권위적 경향을 구분해 보면, 텍스트 자체의 원본성에 대한 권위를 상실한 것과 다른 하나는 특정 엘리트

2)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기술 재생산 시대에서 예술의 모더니즘적 특징을 아우라(Aura)의 몰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우라는 전통적인 예술 작품의 본질이므로 아우라의 몰락은 바로 전통적인 예술의 몰락이며, 저작의 원본성이 갖는 권위의 상실을 의미한다. 벤야민은 아우라의 개념을 모더니즘 예술을 설명하기 위한 미학적·철학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래 아우라는 종교적 의미의 신비스러운 영적 기운을 의미한다. 중세의 성화에서 성인과 천사들의 머리 주위의 둥그런 원은 이러한 아우라를 형상화한 것이다. 아우라는 신비스럽음과 성스러움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종교적 전통의 권위를 형상화한다. 심헤런,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아우라(Aura) 개념에 관하여」, 『시대와 철학』 제12권 1호(2001), pp. 146-148.

3) 김동규, 앞의 글, p. 241.

계층이 소유해 온 텍스트 해석의 권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경우는 성서 자체를 통한 구원론을 전개함으로써 교황의 성서 해석에 대한 특권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시도이다. 이러한 해석의 권위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방편은 모국어로 성서를 읽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개된다. 실제로 루터는 1521년에 신약성서를, 1534년에는 구약성서를 번역하였고, 1546년까지 성서번역의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루터의 이러한 성서해석의 노력은 독일어의 문장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의 독일어 문어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독어사적인 공헌을 간과할 수 없다.⁴⁾

루터의 성경해석의 원칙이 ‘자기 스스로의 해설자(sui ipsius interpres)’라는 것은 당시 성직자들의 성경해석에 대한 도그마적 권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성서해석의 대중화에 대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자기 스스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석에 대한 원리를 필요로 한다. 이를 ‘해석학적 회전관계(hemeneutischer Zirkel)’라 하는데, 부분은 전체에 의해 이해되고 전체는 부분에 의해 이해되어야 하는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결국 부분과 전체는 하나의 총체라는 것이 해석학적 회전관계의 이념이 된다. 따라서 성서는 그 자체로서 자족적인 체계로서 완전하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스스로의 해석학적 회전관계에 의해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갖게 된다.⁵⁾

이와 같이 근대 이후 언어학과 해석학의 영향에 의한 텍스트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이전의 불합리한 경전언어의 권위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의 권위를 제거하려는 근대의

4) 김태성, 「루터의 독일어 성서와 그의 언어」, 『인문논총』 제35권 1호(1989), pp. 139-141.

5) 가다머(H. Gadamer)는 루터의 신학적 해석학이 도그마적 성경해석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었지만 ‘자기 스스로의 해설자’라는 그 자체가 도그마적이라 비판한다. 여기에는 성경이 외부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통일성을 갖춘 총체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 통일성 내지는 총체성 자체가 또 하나의 도그마가 된다는 논리이다. 유형식, 「가다머: 이해의 문제」,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22권(2004), pp. 280-282.

기획은 결과적으로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권위를 배제하기 위한 극단적인 배타성 자체가 또 다른 맹목적 권위로 작용한다는 역설을 간과한 것이다. 또 다른 점에서는 권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일면적인 시도로 인해 권위 부재에서 오는 혼란 역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탈근대를 지향하는 현대의 상황에서 전통적인 권위를 배제하면서 새로운 권위를 생성하기 위한 담론이 요청되는 것은 이러한 현대적 딜레마를 반영한다.

III. 한글성서번역의 전개과정

1. 로스(John Ross) 성서번역의 배경

최초의 한글성서는 견해는 몇 가지로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1882년 로스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한글성서의 기원으로 본다.⁶⁾ 천주교에서는 1790년대에 최창현신부가 한글로 번역한 『성경직해광익』을 최초의 한글성서로 들기도 하고, 개신교에서는 귀츨라프의 『주기도문』(1832)이 한글성서의 처음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구약분야에서는 1897년 2월 창간된 『조선그리스도회보』에 실린 “사무엘 상하와 열왕 기상. 창세기”가 효시가 될 수 있다.⁷⁾ 로스가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⁸⁾

로스는 1872년 중국 선교사로서 산둥 일대를 선교할 생각이었으나 미국 선교사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선교 지역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⁹⁾ 그는 만주를 근거지로 정하고 1873년 가을에 봉천 일대 전도여

6) 이덕주,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1882-1938년 간행된 성서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서울: 종로서적, 1986), p. 114.; 김중은, 「최초의 구약 국의 선구자 알렉산더피터스」, 『교회와 신학』 13집(1981), p. 23.

7) 민영진,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연재된 구약」, 『기독교사상』 336(1986), p. 109; 이덕주. 위의 글, p. 114.

8) 최성일,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 『기독교사상』 397(1992), pp. 116-134.

9) 로스는 1842년 스코틀랜드 북쪽 너(Nigg)에서 태어나 켈틱어(Gaelic Language)를 사용하며 성장했다고 전해진다. 켈틱어는 한글과 어법이 비슷한 점에서 후

행을 떠났다가 고려문에서 한 조선인을 만나 한문성서를 몇 권 전하였다한다. 이를 계기로 로스는 조선 사람들의 강렬한 신지식에 대한 열의에 감동을 받았고 쇄국문에 갇혀 있던 조선에 대한 선교를 결심하게 된다. 윌리엄슨(A. Williamson)을 통해 토마스 목사의 순교 소식을 들었지만 로스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조선 선교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고 전해진다. 그는 조선 가까이 가려는 마음으로 1987년 10월 9일 영구를 출발하여 압록강 하류의 국경지역과 고려문을 방문하기 위한 약 3주간의 순회전도를 나섰다. 당시 고려문은 약 3천 명 정도의 조선인이 거주하는 무역의 중심지였다. 로스는 이들에게 전도할 목적으로 한문성서를 팔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조선이 병인양요(1882)와 신미양요(1871) 등으로 인해 혼란한 시기로서 서구와의 통상, 교역, 외교가 수립되기 전이므로 자유롭게 외국인을 대면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조선 상인들에게 낯다른 관심을 보이던 로스는 남의 나라 기밀을 살피려온 정탐군으로 의심받기도 하였다.¹⁰⁾

1876년 두 번째 여행에서 이응찬을 만나고 이어 한국인 최초의 수제자인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등을 만나게 된다. 이를 계기로 1877년 『조선어 첫걸음』, 1881년 전도문서 『예수성교요령』, 『예수성교문답』을 간행하였다. 마침내 1882년 3월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5월 『예수성교 요안나복음전서』를 심양 문광서원에서 간행하였고 1887년 신약 전권이 『예수성교전서』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이를 『로스 번역』(Ross Version)이라 부른다. 이렇게 탄생한 성서는 로스 개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매킨타이어를 비롯한 앞서 제시된 한국인들의 열정의 산물로 볼 수 있다.¹¹⁾

에 중국어는 물론 조선어를 유창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리진호, 『한국 성서 100년사 1』(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pp. 94-95.

10) 백낙준, 『한국개신교사』(서울: 연세대출판부, 1973), p. 50.

11) 『로스 번역』이 최초의 한글성서이지만 그 평가는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로스보다 늦게 한국 선교에 뛰어난 미국 선교사들은 『로스 번역』에 나타난 평안도 사투리와 어려운 한자, 애매한 표현 때문에 일반화된 사용이 어렵다고 평가한다. 반면 1960년대 초 『새번역 성서』의 번역 위원이었던 리차드 루트(R. Rutt)는 “지금까지 한글로 번역된 성서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은 로스 번역”이라

로스가 우리말 성경번역을 시도한 동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설명된다.¹²⁾ 첫째로 조선의 쇠국이 곧 풀릴 것을 기대하여 그 때에 대비하겠다는 생각이었으며, 둘째로 어둠에 갇힌 1,500여 만의 영혼에 성경을 전하겠다는 신실한 사명감에 의한 것이었고, 셋째는 한글은 습득이 용이하므로 부녀자와 어린이들도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아름다운 소리문자여서 대중화된 한국어 성경의 필요성을 자각하였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한국어가 갖는 번역어로서 우수성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로스(John Ross) 한글성서의 의의

로스의 성서본이 1900년에 국내에서 성서번역위원회역의 「신약전서」가 「예수성교전서」를 대신할 때까지의 약 18년간 서간도 한인촌과 함께 한국 전반에 수백만부가 보급되었고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성립과 한국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¹³⁾ 그는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제임스 레게(James Legge)만큼 위대한 학자는 아니더라도 학문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된다. 서양 언어로 첫 한국 역사책을 썼으며, 영어로 된 첫 한글 문법책을 지었고 한글로 처음 신약 성서를 번역했다는 점에서 한글번역과 어학에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¹⁴⁾

로스의 성서번역이 갖는 의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스 번역에는 한문성경을 대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문 표현과 서북 사투리에 남아 있는 고어들이 자주 발견된다. 그 이유는 로스를 도왔던 사람들이 주로 의주 출신이었고 로스와 매킨타이어 역시 이들에게서 우리말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성교전서』에 평안도

고 극찬하였다. 김창주, 「한글성서의 번역·보급과 그 문화·사회적 의미」, 『신학사상』 124집(2004), pp. 226-227.

12)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1』(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p. 47.

13) 김정현, 『羅約翰(John Ross) 한국의 첫 선교사』(대구: 계명대출판부, 1982), pp. 106-118 참조.

14) 김정현, 위의 책, pp. 69-73 참조.

사투리가 섞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평안도의 독특한 방언과 구개음화되지 않은 강한 발음은『로스 번역』이 19세기 후반의 평안도 방언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점에서 국어학적인 소중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한자어 표현들이 함께 쓰였으나 당시 한자가 통용되어 왔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통해서 해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로스 번역』에만 쓰였던 “성령”, “복음”, “인자”, “축수” 등과 같은 단어들은 한자로 기록하고 한글을 병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¹⁵⁾

둘째, 한글이 현대어로 발달하기 이전이었으므로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글은 종결형 어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침 부호나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로스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에는 장과 절은 물론 단어사이의 띄어쓰기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글의 띄어쓰기와 가로쓰기의 필요성은 한글성서 번역에 관여하고 한글 연구에 가담한 선교사들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다.¹⁶⁾ 『로스 번역』의 특징에는 “하느님”, “주”, “그리스도”, “성령”을 쓴 후에 반드시 한 칸 띄어쓰기를 하는 점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두법(擡頭法)”으로 알려졌지만 “격자(隔字)”를 옳은 표현으로 보고 있다.¹⁷⁾ 한문의 서법에는 왕, 무모 혹은 공경하는 사람을 표기하는 방법을 격자라 하여 “임금”이나 “나라”이름 앞에서 한 칸을 띄어 쓴 것을 말한다. 반면 대두법의 경우는 상제와 같은 천상의 존재를 기록할 때 격자보다 등급이 높다는 의미에서 줄을 새롭게 잡아 쓰거나 보통 시작하는 것보다 한 칸 위에다 기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로스 번역이 “하나님”과 “예수” 등의 낱말 앞에 한칸 띄어 쓴 것은 동양적인 전통의 격자이다.¹⁸⁾

셋째, 로스의 번역은 당시에 통용되던 한문이 아닌 한글번역이라는 이라는 점이다. 오랜 기간 조선은 중국 문물을 숭상해 온 전통에 의

15) 민영진, 『국역성서연구』(서울: 성광문화사, 1884), pp. 131-133.

16) 고영근, 『한국어문운동과 근대화』(서울: 탑출판사, 1998), p. 7.

17) 이용호, 「최초의 한글성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국어교육』 44(1983), pp. 432-435.

18) 김창주, 앞의 글, p. 229.

해 한문을 진서라 하고 한글을 언문이라 천시하였다. 따라서 사대부 계층이나 양반에게서 한문 서적은 그다지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인 엘리트 계층이 아닌 평민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번역의 시도는 그만큼 로스의 전도의 대상이 하층의 평민들과 부녀자와 같은 소외계층이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로스의 번역이 과감하게 한자어를 한글로 풀어 쓴 사례들은 이후의 『신약전서』(1990)나 『구약전서』(1911) 등이 상당수의 단어를 한자어로 쓴 것에 비해 훨씬 성서의 한글화에 앞섰다고 평가된다.¹⁹⁾

로스는 이응찬에게 한국말을 배우면서 과학적이면서 배우기 쉬운 점에 놀랐다고 한다. 그는 한글이 표음문자이므로 음역할 경우 열에서 아홉은 완벽하게 원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까지 말한 바 있다. 이것은 그가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한글을 택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한글 자체의 우수성을 인정하였음을 뜻한다. 결국 경전언어의 효과적인 전달의 필요성과 한글의 탁월성이라는 두 요인이 만남으로써 로스번역의 의의는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로스번역의 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던 한국인 번역자들의 공헌이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²⁰⁾ 한글 성서번역의 선구자로서 로스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들 한국인 번역자들의 도움 없이는 로스의 번역도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다시금 이들의 업적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3. 로스 이후의 한글성서 간행

로스의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간행 이후 한글성서의 발행은 만주와 일본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1881년 5월 신사유람단의 일원

19) 민영진은 로스의 번역이 일반 민중을 고려한 가장 쉬운 번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영진, 앞의 글, p. 136.

20) 로스의 성서번역이 성서와 한글의 대중화라는 의미를 갖지만, 이러한 공헌이 단지 로스 혼자만의 업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당시 로스를 도왔던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서상륜, 이성하, 이익세, 최성균 등의 선구적인 한국인들의 공동번역에 의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덕주, 『초기 한국기독교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p. 337.

으로 일본에 갔던 홍문관, 이수정은 동경에 머무는 동안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다. 이를 알게 된 미국 성서공회 총무 루미스(H. Loomis)는 한국 선교의 호기라고 판단하고 이수정에게 복음서를 한글로 번역하도록 부탁했다. 이수정은 이를 받아들여 1884년 『현토한한 신약성서』, 1885년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를 번역하고 출판하였다. 『이수정 역』은 ‘세례’, ‘그리스도’와 같은 독특한 단어는 ‘밧테슈마’, ‘크리슈도스’ 등으로 헬라어를 한글 음역하였고 동시에 한글 번역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지식인들의 편리를 위하여 중요 낱말을 한자와 한글로 병기하였다. 이 점이 로스의 번역과 다른 점인데, 로스의 번역이 서민 대중을 위한 번역이었다면 이수정의 번역은 엘리트층을 위한 귀족적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이수정의 번역서를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라고 한 것 역시 한글 창제 이후 유교와 불교의 경서를 한글로 옮긴 것을 언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²¹⁾

이수정은 일본에서 성서를 번역하는 한편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선교 잡지에 호소함으로써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조선으로 선교사를 파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수정이 일본에 체류하는 4년 동안 성서번역 외에도 선교사들을 초빙하는 일이나 김옥균, 박영효, 손봉구 등의 지도급 인사들에게 전도하여 기독교인이 되게 한 일, 유학생들에게 전도하여 자치적 교회를 설립하게 한 것은 그의 업적이라고 평가된다.²²⁾ 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에 오기 전에 일본에 들러 조선의 사정과 한글을 배우고 이수정의 한글 성서를 들고 한국 땅을 밟게 된다.²³⁾

이러한 한글성서 번역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당시 타종교의 경전번역 문제와의 비교일 것이다. 불교와 유교의 경전은 한글 창제 이전에도 도입되었기 때문에 한문 경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였으나, 세조 때 와서야 간경도감(1461)을 설치하여 『석보상절』, 『능엄경 언해』, 『반야심경』 등을 번역하였다.²⁴⁾ 유교의 사서삼경 역시 16세기 말에서 17세

21) 이용호, 「한국 근대 문화의 밑바탕이 된 한글 번역 성경」, 『성경』 95, pp. 24-39.

22) 이덕주, 앞의 글, p. 342.

23) 김창주, 앞의 글, p. 235-236.

기 초에 한글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한글 번역사에서 불교와 유교의 한글 번역 서적이 어느 정도 활용되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주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기독교의 성서 번역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하면 지극히 미비한 상태이다.²⁵⁾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것은 당시 유교와 불교보다 비교적 보다 더 민중을 대상으로 포교했던 동학과 증산교 역시 순한문을 쓰거나 한글과 한문을 혼용했다는 점이다. 이들 역시 포교의 대상의 민중 계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 자체를 한글로 기록하여 대중화시키려 한 노력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순 한글 성서의 공헌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IV. 한글성서 번역의 사회문화적 의의

한글 대중화의 공헌을 오로지 개화기의 성서번역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시 자국민의 의사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지속적인 언해번역을 진행하였다. 세종대왕 스스로 언해번역에 관심을 갖고 줄기차게 추진해 온 것은 오늘날 한글 대중화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⁶⁾ 다만 한글성서의 번역을 통한 가히 폭발적인 한글의 대중화와 대중계몽이 기독교 신앙의 열정과 함께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구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독교의 한글 성서 간행이 사회문화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 배경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다.²⁷⁾

첫째, 조선조 말기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조정은 사색당파의 분열로 인해 중앙정부의 장악이 원활하지 못했고,

24) 이용호, 앞의 글, p. 24-39.

25) 김정수는 두 종교가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토착화하여 한문의 텃세가 지나쳤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김정수, 『한글의 역사와 미래』(서울: 열화당, 1990), pp. 41-42.

26) 유명우, 「한국 번역사에서 본 조선조 언해(諺解) 번역」, 『번역학연구』 제5권 2호(2004 가을) 참조.

27) 김창주, 앞의 글, pp. 239-240.

가뭄과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관료의 수탈과 강대국의 침해 역시 유교 이념을 통한 국가 운영의 한계를 인식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량의 인쇄를 가능하게 한 인쇄술의 혜택을 들 수 있다. 기독교와 함께 활성화된 서구의 인쇄술 유입은 한글 성서의 출판을 통해 성서 보급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열정과 성의를 다한 선교사들의 헌신을 지적할 수 있다. 로스와 매킨타이어는 물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게일과 레이놀즈 등의 선교사들이 한글성서의 번역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아펜젤러가 1902년 성서위원회 목포회의에 가던 중 조난을 당하여 숨진 것은 당시 선교사들의 열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넷째로 불교와 유교의 경전이 한글로 번역될 당시에는 다수의 민중들이 스스로 사회적 주체의식을 갖지 못하였으나, 한글성서의 간행 시점에는 임오군란(1882)과 동학혁명(1894)과 같은 민중의 주체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회의 위기의식과 민중의 성숙이 한글성서를 만나면서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아갔다고 평가된다.

또한 한글성서의 보급은 성서 자체뿐만 아니라 성서와 관련된 전도자료와 서적들을 대거 간행하도록 촉발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선교 사업 외에 교육 사업을 통하여 서구의 수학, 지리, 역사, 생물, 물리, 화학, 어학 등의 새로운 학문과 서적을 탐구할 수 있게 하였고, 다양한 잡지와 단행본의 발행을 통하여 폭넓은 한글문화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성서번역의 의의가 당시 우리의 사회문화에 국한된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중세 유럽의 성서 번역은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영향과 변화를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제롬(St. Jerome)의 번역인 라틴어성서(Vulgate)가 결과적으로 라틴어의 발전과 보존에 큰 영향을 미쳤고, 루터는 성서를 번역함으로써 독일어의 통일과 발전에 공헌하게 된다. 위클리프의 영어성서(Wyclif's Bible)와 함께 영국의 제임스 왕은 최고의 석학 54명에게 원전에 근거한 흠정역(欽定譯: The Authorized Version of the Bible or King James Version)을 완성하게 함으로써 아름답고 유려한 영어와 영문학

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²⁸⁾

루터의 경우 성서번역은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주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세 이래 교회중심·성직자중심의 교육을 개인의 위한 공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였던 점이다. 특정 종교집단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던 교육에서 벗어나 국가가 교육을 관장하는 일종의 교육세속화 운동이 전개되고, 소수귀족이나 성직자와 같은 특권층에 한정된 교육에서 일반국민 전체로 확산되는 교육기회의 확대운동으로 전개된다. 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천부적인 인간의 권리로 인식하여 만인을 위한 만인의 교육이라는 공교육이념을 구체화시킨 것이다.²⁹⁾ 이처럼 루터의 일차적 관심이 성서의 이해와 번역과 관련되지만, 성서와 관련된 권위로부터의 해방의 시도가 엘리트적 교육의 권위로부터 대중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 출발점이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성서번역을 통한 모국어의 대중화와 민중교육의 발달에 기여했다는 역사적 사례들은 한글성서의 번역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김병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입으로는 국어를 말하면서도 글로는 한문을 쓴 기형적인 언어생활을 청산케 하고서 한글에 의한 언문일치(言文一致)를 과감하게 촉진시키고 성서의 순 한글에 의한 번역에 의해서 개화기 이후에 등장한 신소설과 몇몇 신문들이 순 한글로 구 문체를 채용하는 등 당시의 국문학자들에게 한글에 의한 언문일치운동으로 줄달음치게 하도록 자극을 준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 … 개화기 이후의 신소설의 언문일치의 문체를 길러낸 산모(産母)는 어디까지나 한글성서였다.³⁰⁾

이처럼 유구한 한문문화권의 전통을 지극히 짧은 시기에 한글로 대체시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한글 성서번역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외솔 최현배는 ‘기독교와 한글’이라는 글에서 기독교가 한글에 준 공덕을 구체화시켜 여섯 가지로 제시

28) 한국영어영문학회 편, 『영어학개론』(서울: 신구문화사, 1995), p. 244.

29) 주영흠, 「공교육이념의 기독교적 기원에 관한 일 연구」, 『총신대논총』 제21권 (2002), pp. 182-183.

30) 김병철, 『한국 근대 번역문학사 연구』(서울: 을유문화사, 1975), 18-19쪽.

한다.³¹⁾ 1) 한글을 민중의 사이에 전파하여 실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날로 쓰기에 편하게 한’ 세종의 뜻의 실현에 기여하였다. 2) 한글의 맞춤법과 문체의 발전과 더불어 ‘언문일치’를 이룰 수 있었다. 3) 한글에 대한 존중심을 일으키고 한글을 지키는 마음을 길러 사서삼경의 한자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 4) 선교사들이 성서를 번역하는 동안 한글의 과학적 가치와 우수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5) 배달의 말글을 세계에 전파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6) 기독교의 성경과 문서는 ‘한글만 쓰기’의 운동을 조성하였다.

한글로 성서를 읽을 수 있다는 역사적 사건은 실용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주체적인 자의식의 문제로서 의의를 갖는다. 자기 언어로 경전을 번역한다는 것은 주체적 자의식과 자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³²⁾ 물론 로스의 성경번역의 동기가 외국인의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그 이후에 주체적으로 진행된 어문번역과 그에 따른 한글의 대중화와 발전은 우리 스스로 자기 언어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글성서의 번역은 이와 같이 기독교의 선교나 복음의 전파라는 신학적인 의의를 갖기도 하지만, 한국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에 더 주목해야 한다. 한글성서는 조선의 혼란한 정치상황과 외세에 의존한 국제 정세, 구태의연한 유교 이념에 지친 민중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그 어느 사회보다 대중의 계몽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글성서를 통해 문맹을 퇴치하고 민중 스스로 사회적 주체로서의 자각을 가능하게 한 점은 소외된 계층의 종교경험에 해방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31) 김창주, 앞의 글, p. 248에서 재인용.

32) 이기성, 『세계화시대에 한국 지성인의 역할』, 『사이』 창간호(서울: 지식산업사), p. 25.

V. 결 론

한국 선교를 위하여 번역된 한글성서는 개화기 국문 연구의 초석과 부흥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한자 문화에 눌러 언문으로 경시되어온 한글이 성서번역으로 인해 한글의 전용과 한글 문화의 확산으로 진행된 것은 단지 선교에 유용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훈민정음의 정신과 기독교의 정신이 성서의 한글 번역과정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교와 유교는 물론, 신흥 민족종교들조차 한문 경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시점에서 기독교 성서를 한글로 완역하여 보급했다는 것은 비교종교의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한문경전들이 일부 계층의 독점적 이해를 대변하였다면 한글 성서는 소외받은 민중과 부녀자 계층들에게 전파되어 스스로 성서의 이해와 신앙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문화적인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 혼란과 격동의 시대적 틈에서 민중을 신앙의 주체로 자각하게 하고 문맹퇴치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점은 한글 성서의 가장 큰 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적 삶이 일상적 삶과 분리될 수 없듯이 종교언어가 일상언어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한글성서가 그 몫을 다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개화기 한글성서의 의의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의 한글성서가 일상의 현대어로서 일반인에게 수용되지 못한다면 또 다른 경전언어의 권위로 회귀할 우려를 안고 있다. 다양한 종교들의 언어가 상호 소통하고 수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글성경의 개역과 수정이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서 오늘날의 우리 삶이 녹아있는 언어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The Trans-authority of Bible-translation and Socio-cultural Signification

Park, Beom-Seok

This research is to discuss the significance of translating the Bible in Korea. It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change by means of Bible-translation in Hangul such as the enlightenment of ordinary Korean and the Hangul popularization.

Ross was the first man who translates the Bible in Korea. He had to learn Korean language, not only for the Bible translation, but also for the evangelization of Korea. But it is clear that Ross considers the women and the poor as the object of his translation rather than the literacy upper-class. His decision to translate into the language of the common people was a kind of revolution that ran counter to the social structure in Korean society. In that situation, women and the poor were absolutely deprived of the opportunity of education owing to social discrimination.

In history, the scriptures' languages had an authority without distinction of western and eastern religious cultures. It would be the exclusive rights for the elite of religious society to interpretate the scriptures. So the translating the scriptures means to dissolve the authority of interpretation from the men of the cloth. Even in German, Martin Luther's Bible-translation had the peoples understood the Bible individually with their own language and its movement resulted to build public school and education.

Key words: Trans-authority, Text-translation, Hangul popularization, language of Scriptures